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는 방법

본문: 요한복음 7:1-18

요한복음 17:3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참된 예수님을 알 수 있는가?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없는 두 종류의 사람과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예수님을 배울 수 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 가는데 아주 귀중한 교훈을 배울 수 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I. 예수님의 형제들의 문제

때는 초막절이었다. 3,4절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 유대에 가서 많은 기적을 행하기를 원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해오신 기적들(e.g., 2:1-11; 4:46-54; 5:2-12; 6:4-14, 19, 21)을 행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를 원했다.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이 이 일을 하시고 계시니 당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 시키고, 5000명을 먹이시는 것 같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생각에 흥분하고 있다. 육체적으로 자기 형이 이렇게 기적을 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기분 좋은 일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세상 영광을 너무 원했다. 그러나 그들의 이와 같은 생각들은 믿음이 없는 행위라고 본문의 저자는 말하고 있다.

5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은 기적만을 구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2:23-24절에서 예수님은 기적만을 보고 믿는 자들의 믿음을 참 신앙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2:23-24

23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24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요한복음 6:15절에서도 기적만을 바라고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하는 자들을 떠나셨다. 이처럼 세상 인기와 영광을 원하고 기적만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다.

II. 예루살렘에 있는 무리들문제

무리들이 예수님을 알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다음의 세 군데서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문제는 7절에 나온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은 예수님의 형제들을 미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그 이유는 그들도 예수님의 형제들

과 같이 세상의 영광을 취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생각과 욕망은 오직 자기 유익을 구하고 세상 권세와 칭찬을 구하며 살기 때문이다. 그들은 서로 생각이 같기때문에 그들을 미워 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이 악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 한 것이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들을 정죄한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 한다. 우리도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때 세상 사람들에게 대한 정죄가 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딤후 3:12)고 하였다.

둘째 11-13에서 무리들의 수군 거리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 .

- 11 명절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 12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 13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없이 세상의 칭찬을 원했고 세상의 비난을 두려워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주님은 앞에서 이렇게 경고하셨다.

요한복음 5:44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 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세 번째 그들의 문제가 15절에 나온다.

- 15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 그들이 놀란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영적인 깨달음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인간적인 학식을 보고 놀란 것이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것은 경건한 놀람이 아니라 인간적인 지식에 놀란 것이다.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에만 머물고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진지한 자세가 없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 수가 없다.

Ⅲ. 보내신 자의 영광을 구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들어 내지 않고 비밀리에 예루살레에 올라 가셨다(10). 이것이 예수님이 일하신 방법이다. 예수님은 “형제들이 세상 영광, 능력, 찬양을 사랑하는 것을 조심 하라”는 것을 행동으로 가르치신다. 그것은 내 길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은 겨자씨 같이(마 13:31)적고 희미하고, 반죽 덩어리에서 부풀어 오는 누룩처럼 조용하다(마 13:33). “형제들아, 만약에 너희가 본 모든 것은 기적이고,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은 세상의 관심과 칭찬을 바라는 것, 세상적인 영광을 갖는 것이라면, 너희는 아직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길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16=18에서 참된 가르침이란 자기의 영광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르침이어야 한다고 말씀 하신다.

- 16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17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18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사랑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1 Corinthians 13:5); 하나님의 영광을 열망한다. 예수님은 인간의 칭찬을 구하며 살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사셨다. 그는 한 가지 강렬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분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다. 그의 인격은 스스로 진실함을 나타낸다. 그것이 합당한 구원의 믿음의 근거이다.

“만약 어떤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면 그는 내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나 자신의 권위로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7:17)”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마음을 닫아 버리면 그리고 대신 세상의 위로와 칭찬을 얻는데 마음을 쏟는다면 그런 사람은 단지 참된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위험스럽고 가짜인 것만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바라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인격이 참된 모습으로 보일 것이다.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 증거가 있고, 구별될 수 있는 진리의 특성이 보일 것이다. 그 기초 위에서 우리는 그를 의지한다. 그가 말한 것을 우리가 믿고, 그가 명령한 것을 우리가 순종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아름다운 믿음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헌신되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째, 예수님의 진리를 아는 데 가장 깊은 방해는 머리의 방해가 아니라 마음의 방해다.

그것은 먼저 우리의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의 문제다. 인간의 영광에 대한 우리의 타고난 사랑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비우는 일에 전 생애를 바친 예수님을 알고 따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분이 누구신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만이 아니라 의지도 변화되어야 한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거듭남의 필요성을 그토록 분명하게 강조하는 이유다. 우리는 자기를 높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더 원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를 중시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중시하는 것을 더 사랑해야 한다. 이에 반대하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다.

둘째,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당신의 마음에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보배롭게 여기게 하시고 그의 참모습을 보는 눈이 열리도록 하시도록 기도하라.

당신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부족함을 느낀다면 당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분께 구하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씀으로 날마다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점점 더 열정적이 되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점점 덜 중독되도록 힘쓰라.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좋아하는 즐거움으로 영적 맛을 높이도록 노력하라.

클래식 음악의 영광에 대한 사랑을 키우고 싶다면 그것을 공부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보내고, 듣고 또 듣고 또 들을 것이다.

시각 예술의 영광에 대한 사랑을 키우고 싶다면 그것을 공부하고 박물관에 가고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보고 또 보고 또 볼 것이다.

그리고 다른 모든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를 바라보고 바라보고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교재가 있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한다. 나는 오늘날 이와 같이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하여 몸부림 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한다.